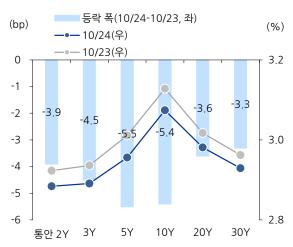
# **Eugene's FICC Update**



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	
		10/24일	1D	1W	YTD		
국내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891%	-4.5	-0.6	-26.3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74%	-5.4	4.6	-10.9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8.3	19.2	13.1	2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98	12.0	-3.0	56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44	45.0	-46.0	94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080%	0.0	10.7	-17.0		
	미국채 10년물	4.213%	-3.4	12.1	33.4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13.3	16.7	11.9	-37.1		
	독일국채 10년물	2.267%	-4.0	5.5	26.3		
	호주국채 10년물	4.451%	-1.4	20.2	49.7		
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■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GDP 충격 소화
- 개강 전 발표된 3Q GDP, 순수출의 저조한 기여도로 예상치 대폭 하회. 한은, 올해 성장률 전망치 2.4% 달성이 어려울 것을 인정하였음
- 아시아장 중 미국채 금리도 다소 반락하며 강세 분위기 를 지지, 외국인, 국채선물 3년물 중심 순매수

##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장기물 중심 강세 마감.
- 장 초반 신규실업보험청구건수 둔화되자 약세 분위기
  조성. 대신 최근 미 대선 불확실성으로 미국채 가격 약세 보여왔던만큼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금리 하락 전환.
- S&P 글로벌 PMI, 제조업 2개월만에 최고치 경신. 서비 스업도 반등하며 예상치 상회. 다만 시장 영향 미미
- 금일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, 미국 9월 내구재수주 등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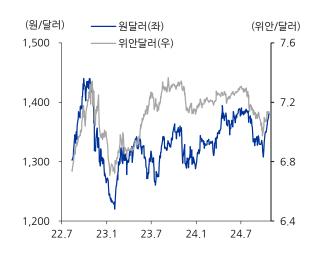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 (단위: %, \$						
		10/24일	1D	1W	YTD	
한율	원/달러	1,380.20	-0.1%	0.8%	7.2%	
	달러지수	104.03	-0.4%	0.2%	2.7%	
	달러/유로	1.083	0.4%	-0.0%	-2.0%	
	위안/달러(역외)	7.12	-0.2%	-0.2%	-0.0%	
	엔/달러	151.87	-0.6%	1.1%	7.8%	
	달러/파운드	1,297	0.4%	-0.3%	2.0%	
	헤알/달러	5,66	-0.4%	0.1%	16.7%	
상품	WII 근월물(\$)	70.19	-0.8%	-0.7%	-2.0%	
	금 현물(\$)	2,736.25	0.8%	1.6%	32,6%	
	구리 3개월물(\$)	9,563.00	0.4%	0.5%	11.7%	

####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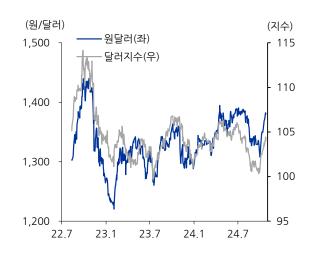
####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#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2.00원 하락한 1,380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82.30원 마감.
- 간밤 달러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다 연준 베이지북에서 경제활동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발표되면서 반락. 달 러-원도 약보합권 출발.
- 개강 전 발표된 한국 3Q GDP가 +0.1%(Q) 증가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자 채권시장에서 11월 인하 가능성이 반영되기도 했으나, 달러-원은 레벨 부담과 관망심리 속 하방 압력이 지속.

##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##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엔화 구두개입과 중동 휴전 기대 속에 되돌림.
- 전일 아시아 장에서 달러-엔이 153엔을 돌파했으나, 일 당국의 구두개입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가 진정.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이 재개 될 것이라 발언.
- 유로존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했던 것도 달러 추가 강세를 제한. 유로존 10월 합성 PMI는 49.7로 전월 대 비 소폭 상승. 그러나 라트비아 중앙은해 총재는 12월 더 큰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평가.
- 미국 경제도 여전히 견고했음. 제조업 PMI는 47.8로 반등했고 신규실업수당 청구도 반락(242K -->227K). 그러나 연속실업수당 청구는 3년 만의 최대치로 상승.